

* 지난주 강단제목 : 슬픔 중에서도 주님을 확신한 예레미야의 눈물 (애 3:22-24, 롬 8:38-39)

(1부) 오전 8:30 · 인도 : 심한걸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2부) 오전 11:00 · 인도 : 박범서 목사, 설교 : 정윤돈 목사

- ★ **임례송** | 오르간
- ★ **예배의 부름**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 ★ **응답송** | 찬양대
- ★ **예배선언** |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 ★ **경배의 찬양**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 ★ **고백과 용서의 말씀** | 설교자
- ★ **주기도** |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주기도송) / 다같이
- ★ **성서교독** | 125. 사순절(2) / 인도자와 회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오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42:1-3)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도다 (시42:5)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이까 하리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도다
 (시42:8-11)

- 찬송 |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 다같이
- 중보의 기도 | (1부) 최진희 장로 (2부) 박영인 장로
- 성경봉독 | 창세기 22:17(구약 28쪽), 마태복음 16:13-16(신약 27쪽) / 인도자
- 찬양 | (1부) 오직 내 안에 / 시온찬양대 (영상)
(2부) 십자가 그 사랑 / 시온찬양대 (현장)
- 말씀의 선포 | **대속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 설교자
- 봉헌 |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다같이
- 교회소식 | 설교자
- ★ **결단의 찬송** | 언약의 사람아(1절) / 다같이

언약의 사람아 애굽과 광야를 두려워 말라 요단 앞에서 당황치 말라
 언약의 사람아 하나님 언약을 체험하리라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리라
 여리고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 너와 나의 사명을 체험하리라
 그날은 장녕 찾아오리라 성취되리라 언약의 날
 능력의 시간표는 그날에, 그날 오리라 사명과 꿈은 이루어지리라

- ★ **파송의 말씀** | 설교자
- ★ **봉헌기도·축도** | 정윤돈 목사

다음 주 기도 : (1부) 유승범 장로 (2부) 김순호 장로

★ 표는 일어서서 · 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부사예배

유치부	오전 11: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2랩넌트실
태양아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이현규 목사 · 장소 : 3층 제1랩넌트실
어린이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오후 2:00	인도, 설교 : 심한결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대학청년부	오후 3:30	인도, 설교 : 박범서 목사 · 장소 : 5층 참사랑홀

* 매월 마지막 주 주일은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연합으로 예배드립니다. (장소 : 5층 참사랑홀)

수요기도회

시간 : 오전 10:30 / 오후 7:30 · 장소 : 1층 비전홀

기도	(오전) 이은희 권사 (오후) 정수환 집사
인도, 설교	(오전) 김양순 목사 (오후) 심한결 목사

다음 주 기도 : (오전) 임예진 권사 (오후) 조현지 집사

금요심야기도회

시간 : 오후 8:00 · 장소 : 1층 비전홀

기관보고	예배국
설교	박범서 목사

다음 주 기관보고 : 관리국

새벽기도회

월~토 새벽 5:30

(월) 심한결 목사	(화) 이현규 목사	(수) 이현규 목사
(목) 박범서 목사	(금) 박범서 목사	(토) 심한결 목사

2026 참사랑교회의 응답

참사랑교회

오직성경 오직복음 오직예수

(이사야 34:16, 디모데후서 3:16-17)

교회소식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10시 40분까지 4층 당회실에서 새가족교육이 진행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친절히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교회소식

1. 부활절(4월 첫째 주 주일)에 세례, 입교, 램넌트의 유아세례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역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이 3월 8일(주일)부터 시작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2. 2026년 중직자대학원 불학기(35학기) 연합예배 및 개강 안내입니다.
 - 1) 연합예배 및 연석회의가 3월 7일(토) 산업선교 예배시간(오전 8시 50분)에 있습니다.
 - 2) 개강예배는 3월 8일(주일) 오후 5시에 드립니다.
 - 3)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개교회별로 등록이 진행됩니다. (등록 안내 : 박동영 장로)
3. 3월, 4월, 5월 마지막 주 램넌트부서 연합예배 후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이 진행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많은 성도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9, 10월은 참사랑선교사훈련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1) 참석대상 : 구역장, 권찰, 중직자, 사역자, 교사.
 - 2) 시간 : 1강(3-4시), 2강(4-5시). 3) 장소 : 5층 참사랑홀.
4. 4월부터 봄철 대심방을 시작합니다. 각 지역 전도인 및 구역장 여러분께서는 구역원들과 의논하셔서 심방 일정을 정하여 각 교구 담당교역자 또는 교역자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매일 구원의 길을 기록하실 분들에게서는 본당 앞에 준비된 용지를 가지고 가져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예배시간과 헌금안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일오전예배 - 1부 : 오전 8시 30분, 2부 : 오전 11시. 장소 : 5, 6층 참사랑홀
 - 2) 수요오전예배, 수요오후예배, 금요심야기도회 / 1층 비전홀
 - 3) 매일 새벽기도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녹화하여 새벽 5시 30분에 전체 소통방에 올라갑니다.
 - 4) 주일 각 부서의 예배시간입니다.
 - (1) 오전 11:00~12:20 유치부 (2) 오후 2:00~3:20 태영아부
 - (3) 오후 2:00~3:20 어린이부, 중고등부 (4) 오후 3:30~4:50 대학청년부
 - 5) 매월 마지막 주일은 오후 2시부터 램넌트부서 연합예배로 드려집니다.
- 5) 다락방 및 지교회 모임은 시간을 정하셔서 줄이나 전화통화, 유튜브를 통해 라이브로 녹화를 하여 양육과 교제와 말씀포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6)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에 헌금을 아래의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입금하실 때 이름과 헌금명을 함께 기록해서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참사랑교회)
 - (예 : 000주정 / 반드시 한글기존 7글자 이내)
 - 일반헌금 : 신한은행 100-013-769840 - 주정, 십일조, 감사, 절기, 차량, 기타헌금 등
 - 헌당헌금 : 신한은행 100-022-072886 • 장학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780
 - 선교헌금 : 신한은행 100-033-576822 • RUTC헌금 : 신한은행 100-035-010731
 - * 헌당, 장학, 선교헌금, RUTC헌금을 제외한 헌금은 일반헌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기금 및 교우소식

1. 교역자의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정윤돈 담임목사 : 3.2 세계청년리더수련회 - 덕평 RUTC, 3.3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 - 덕평 RUTC
 - 2) 박범서 목사 : 3.2 세계청년리더수련회 - 덕평 RUTC
2. 군과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주로 14면에 있습니다.)
3. 교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권사, 김원일 집사, 이영경 집사, 이순덕 권사, 박숙자 집사, 김춘례 권사)

■ 참사랑 RUTC소식 (정치, 경제, 문화, 보건, 복지, 과학, 예술, 체육, 예능, 교육, 군경, 공무원)

1. 금토일시대를 준비하는 참사랑 RUTC 램넌트의 활동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체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서예교실 : 한 달에 1번(토요일) 10시, 2층 식당. (모집 중)
 - 2) 트라킹체조교실 : 당분간 운영중지. (담당 : 정수환 집사 010-5527-6067)
 - 3) 스키&스노보드 : 동계. (담당 : 박찬열 집사 010-8760-0756)
 - 4) 탁구교실 : 매주 토요일 11:50분, 2층 로비. (담당 : 최혜숙 권사 010-9430-9862)
 - 5) 수목캘리그래피 : 첫째, 셋째 토요일 19:00, 2층 식당. (담당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 6) 기타클래스 : 매주 토요일 14, 17, 19시, 4층 당회실. (담당 : 이영 장로 010-2222-7624)
 - 7) 축구&풋살 : 한 달에 1번.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8) 트리니티찬양교실 : 첫째, 셋째 수요일 14:30분, 3층 제2램넌트실. (담당 : 임에진 권사 010-6225-9661)
 - 9) 취미그림교실 : 첫째, 셋째 토요일 17:30, 2층 식당. (담당 : 조수영 집사 010-3777-8315)
 - 10) 복음영어클래스 : 주일(성인) 19시, 토(RT) 3:30분, 1층 초등부실. (담당 : 주은경 권사 010-9542-8212)

교회소식

- 11) 드림클래스 : 매주 토요일 6, 7시, 5층 참사랑홀, 8시 1층 비전홀. (담당 : 김승훈 집사 010-2098-3141)
- 12) 피아노&기초음악이론 :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담당 : 이석 집사 010-5067-1426)
- 13) WIO스마트팜 :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2. 연극, 연극, 영화, 방송, 뮤지컬 토크를 모집합니다. (담당 : 박범서 목사 010-6335-3719)
3. '서예교실'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 이현규 목사 010-9736-3556)
4. 피아노&기초음악이론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심한결 목사 010-8206-2024)
- 1) 강사 : 이석 집사. 2) 레슨방법 : 주1회 1시간(개인레슨). 3) 레슨장소 및 시간 : 4층 찬양대실, 요일 협의.
- 4) 레슨비(4주 기준, 1인당) : 피아노 10만원 / 기초이론 6만원. 5) 모집인원 마감 때까지.
5. 취미그림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순호 장로 010-8630-4414)
6. 성악 발성반 인원을 모집합니다. (문의 : 김희권 장로 010-2334-6713)
 - 1) 강사 : 김희권 장로. 2) 레슨장소 : 4층 찬양대실.
 - 3) 레슨방법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2~4시(회비는 참석할 때마다 1.5만원).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2시 30분(회비 : 월 6만원).
7. 자전거 타는 방법 교육 및 안전교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 1) 대상 : 초, 중, 고교생. 2) 장소 : 울림errick원(평화의 광장). 3) 기간 : 모집 후 결정.
 - 4) 교육기관 : "스포츠레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 : 강인규)
8. 자격증 상담(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 등)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원격평생교육원 (문의 : 최영경 팀장 010-6777-8692)

■ 혼련 및 집회소식 (해당되시는 분들이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주 토요일 산업선교(오전 9시), 전도학(오전 9시 40분), 핵심예배(오전 10시 30분)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본교회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층 비전홀에서 핵심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드립니다.)
2. 2026 세계청년리더수련회가 '전도특공대(롬16:25-27)'를 주제로 3월 2일(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3.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이 3월 3일(화)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4. 초등신학원 및 청소년신학원 2026년 봄학기가 등록 중에 있습니다. (문의 : 담당교역자)
 - 1) 등록기간 : 3월 6일(금)까지. 2) 수업기간 : 3월 7일(토) ~ 5월 30일(토) / 12주간.
 - 3) 등록현금 : 15만원. (재수강 15만원 / 초신예비반 7.5만원 / 청신청강 7.5만원)
 - 4) 등록사이트 : WEEA.KR
5. RU박사원(봄학기)이 3월 17일(화)부터 18일(수)까지 미국 텍사스에서 진행됩니다.

3월 행사 및 일정

구분	본교회 일정 / 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일정
1주차	세계청년리더수련회(2, 덕평 RUTC), 237새가족현장사역자훈련(3, 덕평 RUTC), 초신·청신개강(7)
2주차	세례교육시작(8)
3주차	RU(봄학기)박사원(17~18, 텍사스)
4주차	랩넛트데이(28)
5주차	고난주일, 랩넛트부서연합예배,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29), 세례문답식(4.4) / 237화요제자훈련(31, 덕평 RUTC), 일본랩넛트대회(4.1~3, 나고야)

3월 봉사위원 안내

구분	봉사위원
현금위원	(위원장) 박동영 (위원) 김금남 라중화 신승훈 박희영 양경아 이정미 임소순 임혜연 박주은 이영경
성찬위원	(5층) 최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6층) 김순호A 이명
안내위원	(위원장) 최명홍 (1층) 양경심 김경희A (5층) 최신혜 이은숙 유경선 고진순 (6층) 이정미
주차안내	안수집사 전원

기도제목

■ 연간 기도제목

1. 참사랑교회를 통하여 지역복음화를 위한 3천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2026년도는 '오직성경' 안에서 '참진리'를 발견하고, '오직복음'으로 '참치유'를 누리며, '오직예수'로 '참구원'을 증거하는 참사랑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 총회를 통하여 민족복음화를 위한 40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마르틴 루터, 존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교리에 기반한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속해 있는 참사랑교회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성경적인 신학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총회와 협회와 노회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3. 한국교회를 통하여 237나라 5천 종족,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할 1천만 제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2026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 기도문'

"2026년도도 참사랑교회 실천목표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전도자, 제자, 증인의 응답을 앞당기게 하소서"

- (1) 주일강단메시지 성취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2) 복음요절을 암송하여 생명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옵소서.
- (3) 성경 1독, 성경 쓰기에 도전하게 하옵소서.
- (4) "구원의 길", "십자가의 도" 그리기를 통하여 전도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5)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 (6) 5인 1조의 팀을 형성하여 전문교회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7) 나의 237나라와 나의 선교사를 찾아 선교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 (8)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현장에 참사랑RUTC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 (9) 유튜브 10분 복음소식을 통하여 비대면 생명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 (10) 복음컨텐츠 제작을 통하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옵소서.
- (11) 300전도캠프 현장이 지속적으로 열리게 하옵소서.
(공원, 병원, 커피숍, 학교, 역, 직장, 쇼펍센터, 노인정 등)
- (12) 금토일시대에 사실적인 3가지 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 1) W.I.O 협동조합 (스마트팜, 인공지능, 로봇, 생명, 우주)
 - 2) 치유시스템 구축 (중독, 정신, 영, 건강)
 - 3) 예체능 협동조합 (스키, 체조, 탁구, 축구, 악기 등)
 - 4) 고령화시대준비 (100세 목상요가, 120세 모세건강법)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 5) 복음적인 교육복지 시스템이 모델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 (13) 70나라 여행캠프를 통하여 세계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 (14) 70나라에 병원, 약국, 목상 등 영혼, 정신, 육신 치유의 절대대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 (15) 참사랑전도학교, 참사랑집중전도신학원, 참사랑집중선교사훈련원, 참사랑핵심(주일)을 통하여 부흥의 응답을 주옵소서.

현당을 위한 헌신

70인 요원 (24명) /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계3:12)"
김경수-강승자-김대식 최정웅-전정자 유경형-리종화 주재진-권혜경 김경환-최복순 전인숙-김원일 김창희 임근일(양은숙) 신승훈(박영인) 박점순 정연규(이은숙) 김중복(한명희) 박지영
300인 용사 (131명) / "내가 ...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삿7:7)"
정운돈 최신영 양은숙 박영인 윤두영 강창숙 최봉식 최신주 박동영 최진희 오국환 이은희 조남은 이은옥 최영철 최후순 최명홍 이계옥 구자성 송영희 허경열 홍승희 박희순 이수용 이미자 유승범 주은경 이영순 박영재 양경심 강현자 김영길 박혜숙 김석재 손혜옥 여동훈 백소정 서정례 박철남 이상훈 서희석 나향남 이승재 심주환 김현숙 이홍근 김창희 송길호 최신혜 채용민 이효숙 오신자 정세완 박희영 정수환 최송화 박준민 황인선 주철우 정선희 권은희 민경환 이명재 구윤진 배형석 박인자 여상훈 노선희 김요셉 김해정 김남숙 정민호 이서은 최양호 오난희 장성순 박난순 김순자 김 현 임경미 박범서 김진아 김미선 최철규 현영희 장영호 여준석 김성열 김순호 배승찬 배명자 신옥희 김태은 이남현 오영숙 정향란 강요한 윤홍광 임혜연 박광현 박성혁 이신순 이희숙 왕진상 김선옥 김중남 김주영 김영진 변연숙 윤소현 김성순 김요한 백순덕 김금남 김복남 임영순 김옥천 김순이 서서원 박서진 이현주 김선희 강경현 장경희 유경선 장년영 양은옥 공영호 박봉기 박준석 이영희

지난주 하나님께 드린 예물

주일헌금	정운돈 최신영 최정용 전정아 박범사 김진아 심한걸-정지혜 이현규-김수진 전인숙 김원일 김정엽 유경형 리종화 주재진-권혜경 이수용 오국환 정영규 이은숙 여동훈 박동영-최진희 최명홍-이계옥 정세완 박희영 신승훈 박영인 김 현 김경희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철규 최신혜 이미자 김금남 유승범 주은경 김순초 김영진-최혜숙 이 명 이명재 구윤진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김계자 이정운 강공이 김용관-김정순 신혜선 최이영 이영순 김영순 심성하 김순자 임영순 김계과-장소녀 이은희 호민수 이순덕 박인자 최재경 김현성-이미화 박희영 김희권 이순근 김정연 윤순옥 전은정 유제숙 장유미 김나경 임은숙 정은숙 정민호-이서은 박숙자 나경철-신현식 김명철 한영화 박서이 김주영 정향란 조계형 안나근 정예수 최송화 임혜미 이아연 임혜연 최일숙 이효숙 송길호 유영석 정수환 안도근 최영규-김윤지 김태운 윤태자 이상구-이정미 유승환-최이현 김소라 박난순 김지후-이현주 이민형 이연균 김승훈 김혜인 조부영 고진순 황계주 한경숙 이민수-김숙희 전주을 김창균-임예진 여현식 양은숙 김영희 채송아 안선희 방주는 전 진 배준서 무명15		
십 일 조	정운돈 최신영 김순자 유제숙 정세완-박희영 정민호-이서은 김희권 안민희 임영순 이영순 김계자 정향란 이순근 이명재-구윤진 김현성-이미화 유충현-강공이 최철규-한영화 배준서 이주형 김영진 김태운 조현지 임경미 안경호 이상구-이정미 이민형 고경훈 김금남 나경철-신현식 임근일-양은숙 김영희 정창호 임예진 윤차현 손상현 이은희 최신혜		
감사헌금	정운돈 최신영 박서이 이영경 정민호-이서은 문혜영 김애경 김일호 박학규 양경심 김현진 정수환 방주는 권혁복 김지후-이현주 박영인 최신혜 이은숙 이계옥 유경형-리종화 박지영 박동영-최진희 김영희 니영수 최송화		
심방헌금	지복순 임상식-임민재-지성순		
차량헌금	박동영-최진희		
일천번제	최신영		
선교헌금	박범사-김진아 박서이 김순호 이은희 이영순 임영순 유승범-주은경 방주는 정수환 유영석 안도근 김승훈-김혜인 김창균-임예진 박동영-최진희 임근일-양은숙 최신혜		
스리랑카 차유센터	정수환 정민호-이서은	스리랑카 차유센터(2026년도 합계)	141,000원
헌당헌금	정운돈 최신영 전정아 박서이 김순호 최철규-한영화 임영순 강공이 김일호 방주는 유승범 주은경 김태운 정수환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임근일-양은숙 최신혜 무명		
강학헌금	박서이 김순호 이영순 방주는 김우진 유승범 주은경 정수환 김승훈-김혜인 박동영-최진희 임근일-양은숙 최신혜		
어학연수	정수환 여 명		
RUTC헌금	정운돈 김원일-전인숙 방주는 정수환 임혜미 김승훈-김혜인 조부영 박동영-최진희 임근일-양은숙 김영희 최신혜		

* 이름이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2026.2. 19. ~ 2026. 2. 25.)

헌당헌금 (2026년도 합계)	34,377,000원	차량 구입헌금 (2026년도 합계)	160,000원
참사랑 RUTC헌금 (2026년도 합계)	2,324,000원	어학연수헌금 (2026년도 합계)	1,235,000원

헌당대출잔액 : 일본법화 455,000,000엔 (환화 4,322,500,000원 / 100엔환율=950원기준)

일반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13-769840 참사랑교회 헌당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22-072886 참사랑교회
선교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822 참사랑교회 장학헌금계좌 : 신한은행 100-033-576780 참사랑교회
참사랑 RUTC : 신한 100-035-010731 참사랑RUTC

2026년 구역조직

- 교구장 : 정운돈 목사

- 1교구(1~3지역) 담당교역자 : 박범서 목사 | 총무 : 이미자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1지역/ 최진희	①오금1 (오국환)	박인자	최진희	최정웅 전정아 박동영 최진희 박서운 박찬열 배형석 박인자 배영광 정우연 배고는 박접순 이신순 <u>최일숙</u> 조영희 장혁준 최봉식 최신주 최해나
	②오금2 (박동영)	김주영	주은경	정운돈 최신영 정예승 정예준 정예건 이재풍 김주영 이승현 이지훈 유승범 주은경 유현나 유현상 유준상 유민상 주종성 박학규
2지역/ 이미자	③방이1 (이수용)	양경아	유경선	이수용 이미자 이재은 여준석 양경아 여 명 여수아 정철호 유경선 이진수 정동주 정동훈 이은순A 김흥기 문길순 김갑례 임상식 지복순 박서이 박필수 박소현 박경구 박도경 박세연
	④방이2 (최철규)	홍미경	이미자	최재혁 홍미경 최옥현 최도연 백은지B 윤소현A 윤대현 윤차현 박현우 김잠A 최종현 김명자 김성배 강길자 김운우
	⑤천호 (유경형)	리종화	홍경아	유경형 리종화 이대수 홍경아 이지오 이태이 홍형표 유승환 최아현 유나림 유하림 이영숙 박철남
3지역/ 김금남	⑥잠실 (이은숙)	조부영	김소라	조부영 양승현 양승우 황규칠 김소라 황다인 황세희 박광현 조영주 박근혜 박지혜 박지영 최보인 권순민 최형란 권유나 권유빈 이효숙 채송아 채정우 전민식 구순자 정재홍 전해진 정리아 조현지 오은사 권구현
	⑦송파 (임근일)	양은숙	박승숙	김금남 김수형B 김수민 임근일 양은숙 임혜연 유영석 박승숙 유세정 유진아
	⑧하남 (김경희)	김영희	한영화	이현규 김수진 이시은 김경희A 현백규 김현아 김영희 황혜주 강정자 최철규 한영화 최종인 손병순 김준석 윤수연 조수영 홍주원 최영국 김윤지 최리오 심성지 심성하 유지열 송수민
서울 경기	⑭박범서 목사			장미선 김희서 김원준 김유진 문예은 최한나 최한별 권우현 정민진 김대욱 박유신 김혜원 김기채 고정호 고정협 스톱모 강지우 전영종 김유나 이재준 이시연 손완식 양은예 손보미 손재현 손보국 이정택 이은순B 이기원
	⑮심한결 목사			권세미 원철호 홍정아 강예은 강예림 김형준 박현주 김민규 최영희 김정남 김효경 권영숙 구성하 김수정 김성애 이아름 예 교 박준영 박준은 박지유 김미선 이혜승 이혜준 이현우 이은옥 조유연 조용연 이재운 민희선 김가원 김도원 도상철 채희은 도성우 김경현 강소영 김유은B 김소는 김석재 김정길 박순연 박준민 황인선 박수진 박수정 이종관 서숙정 이주한 이지한
	⑯이현규 목사			윤지은 최명자B 고대중 박형진 류성미 박하늘 박하룬 안진성 문경화 안서윤 안채윤 안신영 신한수 이은주B 신민승 신연서 한경숙 변지영 박형석 강돌봉 박요셉 구황경 이선미 구아라 구지후 이기덕 김복란 이광훈 김명화 최민지 최민기 천 용 이유희 최지원 조현우 이채원 이상훈 노선희 여준후 여선후 박은선 김준일 최숙영 김하은 김유은A 김은성 송형자 정화영 한주아 한태민 최영철 최후순 최요한 최지는 최두영 오주희 최하랑 최하을 최하린 김혜수

* 위 명단은 각 구역원과 기도대상자의 명단입니다.

2026년 구역조직

- 2교구(4~6지역) 담당교역자: 심한결 목사 | 총무: 양경심 장로 - 3교구(7~9지역) 담당교역자: 이현규 목사 | 총무: 최신혜 장로

지역/ 전도인	구역 (담당장로)	구역장	권찰	구 역 원 (* 밑줄은 미션 홈 이상 훈련수료자)
4지역/ 김계자	⑨오금3 (정세완)	박희영	임경미	정세완 박희영 김 현 임경미 김 수 김혜린 정연규 이은숙 김춘례 임수미
	⑩오금4 (주재진)	신혜선	권혜경	김계자 주재진 권혜경 주예진 신혜선 유연정 유지훈 임경순 양순옥 임선규 김태운 김금녀 이종남 김영순
	⑪오금5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최명홍 이계옥 최송화 정수환 정재환 전성배 박은서 김영중 김준영 김민성
5지역/ 양경심	⑫올림픽1 (김현)	장길순	이영순	유운식 장길순 유효진 유운재 이영순 박준식 설정화 박수환
	⑬올림픽2 (여동훈)	정년영	김정연	정년영 김정연 한공순 허경열 허지선 박성진 박서연
	⑭올림픽3 (양경심)	이현주	양경심	박염재 양경심 박주은 박주영 김수영A 이현주 김지후
6지역/ 김순호	⑮강남 (김순호)	손혜옥	임소순	김원일 전인숙 김구영 빌 마 김의찬 김주찬 안경호 김순호A 안도근 안나근 안예근 손혜옥 김주원 김혜원 임소순 천혜숙 강현자 김나경 김희경 김경애 이정민 조연희 조재형 조현근 고경훈 김일호 김두원 김세희 안선희 안민희 안현희 최영혁 김현진 박진수 윤성희 권혁복
	⑯구리 (유승범)	이정미	임영순	이상구 이정미 이진형 최가은 이민형 이주형 전진 임영순 임동영 장유진 이정수 장유선 이진우 김명철 장유미 김지유 전은정
7지역/ 이명	⑰오금6 (배승찬)	이명	임예진	박범서 김진아 배승찬 이 명 배준서 배현서 김창균 임예진 김하은A 김재승 윤소숙 구자성 송영희 이명재 구운진 이미화 김자영C 김민영 김근호 백순범 윤혜영 백소을 백하을 박환희 오상수 원태연 원아연 김희권 김승훈 김혜인
	⑱오금7 (이명)	최혜숙	홍명숙	김영진 최혜숙 김시연 김시아 최아영 홍명숙 손가을 손하늘 오신자 니콜라 박경아 라 나 아멜리 김순자 이병부 김경열 김운태 박숙자 도정호 유경순 도규철 이연균 도지민 김선희 김순호B 이 하 안지용 안수현
	⑲오금8 (여준석)	고진순	이선아	오국환 이은희 오유라 오아라 유계숙 고진순 방주은 정문철 이선아 정유호 정은유 김창대 이정임 김아리 김아영 위준승 문정민 김애경
8지역/ 최신혜	⑳문장 장지 (리종화)	최신혜	이가에	송길호 최신혜 송은수 송영민 송지수 신성원 이가에 신현옥 신지유 장영균 송미걸 장현규 장현우 장이준 장이서 장성순 박난순 장희영 장하은 민경환 권은희 나경철 신현식 니주희 니준홍 박진순 박주봉 박주승 장소녀 김지웅 김창호B 유정빈
	㉑가락 (정연규)	백소정	정선희	여동훈 백소정 여현지 여종원 여은성 주철우 정선희 주이서 주이준 주이연 이용도 최재경 이다연 이아연 정민호 이서은 노은현 손상현 이근제 이순근 이수산나 허가이 임혜미
9지역/ 박영인	㉒거여 마천 (최진희)	박영인	이순덕	신승훈 박영인 신동윤 이정윤 이순덕 이영경 호민수 정은숙 박지현 이 석 김재우 유충현 강공이 유승호 전주을
	㉓강동 (신승훈)	정향란	김숙희	심한결 정지혜 심주연 심지연 정향란 이민수 김수희A 이하연 이하준 김은영 차영민 차승민 장영호 소선미 함조소 소속현 함재이 오인태 김자영B 오하림 오하을 김선옥 김지수 김성재 윤태자 정창호 김미현 정승주

슬픔 중에서도 주님을 확신한 예레미야의 눈물

-복음으로 여는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애가 3:22-24, 로마서 8:38-39

서론: 예레미야의 고난과 하나님의 시간표

1. 영적 기준점이 되는 예레미야의 역사 오늘날은 예레미야애가서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성경 역사를 면밀히 살펴보면 중요한 영적인 기준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다. 창조와 타락,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같은 것들이다. 보통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핵심적인 역사적 기준점으로 잘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묵상할수록 예레미야라는 인물과 그 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중요하다. 예레미야를 묵상해보면 그는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겪은 사람이다. 그의 40년 사역기간 중 좋은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무언가 좋은 것이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이나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았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고통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우리네 인생은 살다보면 하나님이 좋은 것도 주시고 가시적인 응답도 주시지 않는가.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새롭게 느낀 것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 전체 인물 중에서 어쩌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욥도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당대에 눈에 보이는 축복을 거의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사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았다. 그의 기도와 메시지는 70년 후, 성전회복과 국가회복의 소망이 되었고, 그 영향력 아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넵고 같은 걸출한 랍넛트들이 일어났다. 그는 죽은 후에 비로소 자신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는 것을 보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주인공'이었다.

2. 하나님의 시간표와 조급함의 경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은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한다. 예레미야는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은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응답하지 않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하겠다"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짜증 날 일이지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와 같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이 안 된다며 고민하시기에 "천 년의 응답을 받으시라"고 권면한 적이 있다. 이는 당장 내 눈앞에 결과가 없어도 실망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라. 수천 년이 지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남은 자로, 랍넛트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는 것 같지만 결코 늦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의 은혜가 미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그러므로 성도는 조급해서는 안 된다. 시간표를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는 것이다. 불신앙은 시간표를 늦춘다. 이스라엘 민족이 40일이면 갈 길을 불신앙 때문에 40년 동안 평야를 헤매지 않았는가. 우리가 겪는 문제 앞에서 짜증을 내고 인상을 쓰는 그 하루가 우리 후대들에게는 수백 년의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와 조부모의 믿음은 후대에게 복의 근원이 되거나 저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 1분, 1초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사춘기라는 핑계로 예배에 실패하고 불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300%의 응답 중 3%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급이라도 붙잡고 나아갈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천국보다 더한 축복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지옥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예레미야의 삶은 결코 모든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거나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극한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다. 그는 고난의 현장 한복판에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역사에 영원히 남는 믿음의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그 언약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3. 세상 물정을 아는 지혜와 영적 망대 예레미야 선지자 이전의 왕이었던 요시아 왕을 보라.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이었으나, 애굽 왕 바로 느고와의 전쟁에서 허망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말씀을 회복했는데 왜 죽어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느고는 요시아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달했다. 요시아 왕은 신앙은 좋았는지 모르나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 몰랐다. 강대국 사이에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때 고집을 부리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이 곧 고집불통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음의 사람은 더 여유가 있고, 배려할 줄 알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안다. 힘이 약한 나라라면 국제 정세를 살펴며 지혜롭게 처신해야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길거리에서 작은 차가 큰 차 앞에서 잘못을 했다고 치자. 큰 차 주인이 화가 나서 난리를 쳐도 작은 차 주인이 격투기선수

처럼 힘이 세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를 피해 가는 법이다. 자신의 혈기를 못 이겨서 사고를 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우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준은 나의 성격이나 체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절대망대, 절대기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착한 것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신앙생활 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은 나중에 이상한 친구를 만나면 급세 마귀에게 속아 눈동자가 도기처럼 변하기도 한다. 하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못된 성질도 복음 안에서 갱신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이전 교역자처럼 강단메시지를 붙잡고 자신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진짜 응답받는 길이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절대망대이자 기준이 되기를 축원한다.

4.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심(애3:22-24)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비참한 현장 속에서도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았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고통과 환경이 원망과 불평, 분노와 짜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였다. 당시 상황을 보면 요시아 왕은 허망하게 전사하였고, 나라는 빼앗겼으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자녀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할 법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매일 저녁 기도하고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체험하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응답은 이미 '완료로 확정되어 있음'을 믿었다.

5. 하나님의 자녀된 영적 자부심과 자존심(통8:38-39)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고한 자부심과 자긍심, 그리고 영적 자존심이 있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 앞에서 짜증을 내거나 인상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실은 매를 맞고, 웅덩이에 빠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밑바닥에서 확실한 믿음을 붙잡았다. 돈이 없거나 건강을 잃거나 가난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고백할길 바란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궤를 같이 한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다. 이 고백이 성도의 당연한 고백이 될 때 흑암을 겪고 이 땅에서도 참된 응답을 누릴 수 있다.

6. 그릇투기를 통한 회복과 절대망대의 시명 이스라엘의 회복은 인간의 수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전은 70년 만에 회복되었으나,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이 완전히 돌아오기까지는 다니엘과 그 후대들을 거쳐 약 150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록 초라한 성전으로 시작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크고 은밀한 비밀'을 담아두셨다.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는 결국 남은 자(렘넌트)를 통해 응답되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 다 죽은 것 같아도 그 뿌리가 남아있는 '그릇투기'에서 새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세상에 믿음이 없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다면 반드시 다시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된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여 응답의 시간표를 앞당겨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절대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이다. 다했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천 개의 파수망대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망대를 세워야 한다.

들어가는 말씀 : 예레미야애가서의 의미와 신앙고백

예레미야 애가서의 히브리어성경 제목은 원어로 '슬프다'이다. 이 책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기록한 슬픔의 노래이며, 그 안에는 고통스럽고 슬펐던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다. 단순히 슬픈 감정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는 도저히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그 밑바닥에 흐르는 깊은 신앙의 고백과 믿음을 기록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평생 지키 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 예레미야 43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포로로 끌려가는 길에 암울했으나 이스라엘 사령관 느부사다란에 의해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고통이 커질수록 그의 믿음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우리에게 '믿음의 절대망대'이자 '영적 이정표'가 되는 모델이 되었다. 성도들은 가문과 현장에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믿음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1. 이스라엘과 예레미야가 당한 실질적인 어려움

(1)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

1) 유대 민족이 당한 고난과 수치(애1:1) 예레미야애가 1장 1절은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었고 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라고 탄식한다. 과거 다윗과 솔로몬시대에는 전 세계에서 지혜를 얻러 오고 보물을 바칠 만큼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전성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적막한 폐허가 되었다. 공주와 같았던 존귀한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을 보며 예레미야는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보통 슬프면 눈물을 흘리지만, 간절함이 극에 달하면 온몸에 땀이 날 정도로 애를 쓰게 된다. 땀방울이 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썩어질 세상의 금메달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복음과 진도를 위해 이러한 간절함과 '헌(恨)'이 있어야 한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피땀을 흘리는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

2) 예배의 중단과 성전의 파괴(애1:4, 1:10) 예레미야애가 1장 4절에 따르면, 시온의 도로들은 슬퍼하고 절기를

지키러 나아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모든 성문은 적막하고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영적 기근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또한 1장 10절 말씀처럼 대적이 손을 펴서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갔다. 이는 이스라엘이 피체함과 언약의 절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한 재앙이었다.

3) 굶주림으로 인한 처참한 비극(애2:20) 가장 참혹한 상황은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자 성 안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고,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여인들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잡아먹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처참한 지경에 이른 것은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4) 결론적 교훈 : 영적 소망과 기쁨의 회복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은혜를 구했다. 우리 역시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민낯과 응답을 찾아내어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비록 지금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암담해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가 있다면 반드시 모든 것을 정복하고 회복하게 된다. 세상의 원망과 싸움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앙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2)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이 겪은 고통

1) 목회자의 고통과 진정한 집중의 의미 예레미야 선지자 본인이 당한 고통은 실질적으로 매우 컸다. 목회자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음에도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지 않거나 깨닫지 못할 때이다. 진정한 집중이란 많은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주제를 붙잡는 것이다. 이는 학교공부나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윗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의 시간표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붙잡는 것이 응답받는 축복의 길이다. 예레미야는 고난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천 년의 응답을 바라보며 후대를 향한 메시지를 남겼다.'

2) 포로생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계획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말씀을 전했지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요시아 왕이 회복한 말씀을 바탕으로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제자들을 양육하였다. 그러나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 이후, 그가 정성껏 키운 제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회복할 인재를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인재인 바벨론을 복음화하기 위해 그들을 국부총리로 세우고자 미리 보낸 신이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뒤에는 더 큰 세계복음화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3) 예레미야가 겪은 육체적·정신적 수난 예레미야 3장 53절에서 55절 말씀처럼 대적들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끊으려 웅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극한의 상황이었다. 잠인 12장 1절에는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기록되어 있다. 개인적인 예화로, 나의 아버님은 목소리가 크고 엄격하셔서 사춘기시절 상처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아버님의 훈계를 수용하였고, 이를 통해 영적으로 단련될 수 있었다. 고단 내에서 거칠게 행동하는 이들을 만날 때도 위축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러한 환경 속에서 단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이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의 절대주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또한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기 전 모진 매질과 고문을 당했다. 당시의 감옥은 빛도 없고 습한 지하구덩이와 같았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살과 가죽이 쇠하고 뼈가 꺾이는 수치를 당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렘16:2).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오직 사명에만 집중하게 하였고, 예레미야는 굶주림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잡아먹는 참혹한 현장까지 목격하며 이스라엘의 재앙을 운문으로 겪어야 했다.

2. 고난 속에서도 빛나는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

예레미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잃고 고통당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남겼다. 이 고백들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든 붙잡아야 할 영적인 대원칙이다.

(1) 무궁한 인자와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심(애3:22-23) 예레미야는 애가 3장 22절에서 "여호와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고백한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와 민족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계획을 믿은 것이다. 이어 23절에서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나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노래한다.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나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고난이 계속되지만, 예레미야는 그 성실하심이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동력이 될 것임을 믿었다. 이는 미래를 바라보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다.

(2)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사(애3:24) 예레미야는 3장 24절에서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사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고통뿐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유일한 소망이자 자신임을 인정한 것이다. 나는 최근 우리 교회를 통해 100억, 1,000억짜리 부자 1,000명이 세워지게 해달라는 기도 가 나왔다. 과거 고아원에 있을 때 공부가 부족했던 100명의 아이를 모두 대학에 보내고 자립시킨 경험이 있다. 지

금 서울의 성도들을 보니 모두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죽도록 충성하여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237나라와 세계를 살리기 위해 전 세계를 자신의 기업으로 만드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 나의 기업이시라"는 고백을 붙잡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다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모은 응답의 문을 여시길 바란다.

(3) 자발적이고 성실한 '남은 자의 태도' 하나님의 자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은 회망이 없다. 스스로 먼저 찾아서 하는 자발적인 중심이 필요하다. 군대에서는 한 번 지시하면 아홉 번을 확인해야 겨우 일이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그런 수동적인 태도로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거나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말하면 열을 알아듣고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 지방에 있을 때 한 램프가 겨울 방학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장이 여름에도 꼭 다시 와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이는 그 친구가 성실하게 현장을 지켰다는 증거다. 어디를 가든 사장이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가게를 가보면 주인이 아닌데도 주인처럼 일하는 직원이 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반면 시간만 때우고 퇴근할 궁리만 하며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우리는 꾸지람을 듣기 전에 먼저 헌신하며, 현장에서 사장보다 더 사장 같은 마인드로 일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4) 선하신 여호와를 기다리는 소망(애3:25, 31, 32) 3장 25절은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와는 선하시도다"라고 말씀한다. 주님의 축복을 믿으며 오래 참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흠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기를 들고 대로를 만드는 자로서 길을 만드는 이정표적 인물들은 바로 이 기다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다. 또한 31절과 32절에서 주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시며, 잠시 근심을 주시더라도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긍휼히 여기실 것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이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연결되듯이, 지금의 고난은 형언할 수 없는 축복으로 회복될 과정일 뿐이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차기를 축원드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근심과 염려, 격정거리를 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 너머에는 반드시 풍요와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 지금 겪는 모든 환난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응답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

(5) 영원한 보좌와 회복의 간구 (애5:19, 21) 예레미야는 마지막 5장 19절에서 영원히 계시는 주님의 보좌를 바라본다. 세상의 왕좌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21절에서 "우리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라고 간구한다. 이는 회개와 전도, 심지어 고난 중에 감사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성도와 후대들은 이 은혜를 덧입어 3천 제자, 40만 제자, 1천만 제자, 237나라와 5,000종족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 우리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승리이다.

결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와 후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한다.

참사랑 RUTC현황 (예체능체험교실)

	시간 & 장소	담당자		시간 & 장소	담당자
여행캠프	모집 시	정창호 집사	서예교실	한달 토 10:00, 2층 식당	모집 중
트릭키체조교실	당분간 운영중지	정수환 집사	스키&스노보드	동계	박찬열 집사
탁구교실	매주 토 11:50, 2층	최혜숙 권사	수목캘리그래피	1, 3주 토 19:00 2층 식당	김순호 장로
기타클래스	매주 토 14, 17, 19시 4층 당회실	이명 장로	축구&풋살	한달 토 오후	김승훈 집사
트리니티찬양교실	1, 3주 수 14:30 3층 제2랩넌트실	임예진 권사	취미그림교실	1, 3주 토 17:30 2층 식당	조수영 집사
복음영어클래스	매주 토 15:30, 주일 19시 1층 어린이부실	주은경 권사	드림클래스	매주 토 18, 19, 20시 5층 분당, 1층 비전홀	김승훈 집사
피아노&기초음악이론	개인별 레슨 진행 4층 찬양대실	이석 집사	WIO스마트팜	비정기적 열린 포럼 진행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정윤돈 010-8033-5678	부목사	심한결 010-8206-2024	묵(전담목)	김양순 010-8328-0132
원로목사	최정용 010-5260-5511		이현규 010-9736-3556	협동전도사	전인숙 010-8881-5222
부목사	박범서 010-6335-3719	교육전도사	배고은 (네덜란드파송)	사무간사	박난순 010-9930-5558
전도인	최진희 이미지 김금남 김계자 양경심 김순호 이명 최신혜 박영인				
장로	(시무) 유경형 주재진 이수용 오국환 정연규 여동훈 박동영 최명홍 정세완 신승훈 라중화 김현 여준석 김경희A 배승찬 양경심 임근일 최칠규 이은숙 최신혜 이미지 김금남 최진희 박영인 유승범 김순호A 이명 김영진 (협동) 이군재 전민식 장공이 (해외) 최봉식 (은퇴) 이명재 강현자 정년영 송영희 오신자 (명예) 박철남 김계자 이정운				
찬양대	(지휘) 고경훈 (오르간) 이서은 임예진 (피아노) 최신영 최승화 이석 (비올라) 채송아				

예배 및 모임 안내

예배			교회학교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5층, 6층 참사랑홀	태영아부	주일 오후 2:00	3층 제1랩넌트실
	2부 오전 11: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오후 2:00	어린아부		주일 오후 2:00	1층 비전홀
	오후 3:30		1층, 3층, 5층 (부서별 예배)	주일 오후 2:00	
수요기도회	수 오전 10:30	1층 비전홀	중고등부	주일 오후 2:00	5층 참사랑홀
금요심야기도회	수 오후 7:30		대학청년부	주일 오후 3:30	
	금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30	영상			
자체훈련			세계복음화전도협회훈련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새가족훈련	주일 오전 10:20	4층 당회실	산업선교	토 오전 9:00	1층 비전홀
복음소식	주일 오후 12:30	3층 주간보호센터	전도학	토 오전 9:40	
태영아공동육아	수 오전 11:30	3층 제1랩넌트실	핵심요원훈련	토 오전 10:30	
어린이사명자	주일 오후 1:00	3층 제2랩넌트실	중직자대학원	주일 오후 5:00	
중고기도회	주일 오후 1:40	5층 참사랑홀	초등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집중전도신학원	수시	참사랑교회	청소년전도신학원	토 오후 2:00	

국내외선교지

선교사파송 100명(협력 및 후원기관)

- ① 심주환선교사(일본 히로시마) ② 배고은선교사(네덜란드) ③ 이종우선교사(일본) ④ 이창국선교사(러시아)
 ⑤ 황규영선교사(네팔) ⑥ 임호성목사(서울역 노숙자학교) ⑦ 왕선교사(RTS C107) ⑧ 정화권선교사(필리핀신학교)
 ⑨ 김동길선교사(케냐) ⑩ 서해영선교사(카자흐스탄) ⑪ 문철선교사(팔라완) ⑫ 벤자민목사(인도)
 ⑬ 서진태선교사(스리랑카)

군파송자

[육군] 백승원 송영민

해외파송자 (26)

[미국] 최형란-권순민(권유나 권유빈) 김국한 박석훈 최봉식-최신주(최해나) 강지우 이진형-최가은 정예준
 [호주] 박영준-김수미(박윤성 박민성) 박영환 [영국] 박경아-니콜라(라나 아멜리) [네덜란드] 배고은
 [일본] 오유라 [인도네시아] 전민식 구순자

교회 역사

오금동과 함께 성장한 교회 |

1960년대 후반, 정부는 서울 전역의 판자촌을 정리하는 정착지 조성 이주사업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자촌 주민들은 청소차에 실려, 허허벌판이었던 오금동에 버려졌습니다. 한 가구에 주어진 여섯 평의 땅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 살던 이 정착민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남대문교회의 김근숙 권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군용 천막 하나를 빌리고, 직접 복을 치며 사람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것이 오금동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인 오금중앙교회, 지금의 참사랑교회입니다. 대머리산에 세워진 조그마한 오금중앙교회 성전은, 마을 아이들 이 뛰어놀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1980년 부임한 최정웅 목사와 함께, 이렇게 지역 사회 속에서 성장해 온 오금중앙교회는, 세계복음회를 마음에 품고 2005년에 참사랑교회로 이름을 변경했으며, 2007년에는 현재의 자리에 세 번째 성전을 지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참된 해답, 참된 사랑인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만을 말하는 복음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참사랑교회는, 2018년 최정웅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정윤돈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여 새로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가입된 건강한 교회이며, 58년 동안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자리온 토박이 교회입니다.



교회 소개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

참사랑교회는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며, 오직 복음만이 온 세상의 해답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후대운동으로 후대를 살리는 교회 |

많은 후대들이 학교와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희망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참사랑교회는 후대를 살리고 인재를 키우는 것을 첫째의 우선순위로 삼고, 지역 인재 장학사업, 방과 후 활동 및 상담활동 지원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교로 세계를 살리는 교회 |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류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 세워진 참사랑교회는 창립 이후 계속해서 낙도 선교와 남아시아 선교를 후원해 왔으며, 현재는 일본 히로시마와 아프리카 남수단, 몽골 울란바토르, 필리핀 마닐라, C국 S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

병들고 소외된 이들의 벗이 되셨던 주님을 본받아, 참사랑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및 송파구와 협력하여 참사랑 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행복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참사랑노인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램넛트 및 사회복지선교국과 협력하여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